

# “비오는 날 밤 운전, 차선 안 보여 아찔”

제주시내 차선 지워지거나 희미한 도로 수두룩  
운전자들 “사고 날뻔... 왜 차선 도색 하지 않나”

제주시 도로 곳곳의 차선들이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마모돼 보이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낮은 휘도(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유리자루를 섞어 빛을 발산시키는 기준)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줄어든 예산 탓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 흰색 점선으로 그려진 차선은 희미해져 거의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지워진 곳도 있었다. 이날 아침 비 날씨로 인해 차선 확인은 더욱 어려웠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선을 이탈한 채로 주행하다가 이탈을 인지하고는 급히 제동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힐 뻔하는 등 아찔한 모습도 목격됐다.

20대 운전자 A씨는 “밤마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오늘같은 비날씨에는 낮시간대임에도 차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같은 민원은 제주도 인터넷 신문고에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민 B씨는 “차선이 보이지 않아 나도 모르게 차선을 이탈해 마주는 차량과 사고날 뻔한 적이



차선이 사라진 제주시내 한 도로.

몇 번 있었다”면서 “제주 전 지역을 살펴 희미한 차선들을 모두 보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흐릿해진 차선은 백색 점선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차로를 나타내는 청색 차선, 심지어는 중앙선을 표

시하는 황색 차선 등 다양했다. 제주시는 도색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관련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올해 편성된 예산은 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나 줄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1~2년 주기로 해야 하는 차선 도색은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현장을 다니면서 심한 곳부터 처리하고 있고, 도로 위 차선을 그리는 도로는 내구성이 좋은 5종 대신 4종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5종 도로는 비싼 단가 탓에 지금까지는 4종 도로를 사용했다”면서 “올해는 5종 도로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차선 도색작업을 위한 공사 발주를 한 상태이며 입찰이 되는대로 시공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재현기자

## 100년 전 제주사회는 어땠을까...

우당도서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쓴 책 번역 발간

이색 사회통계 등 가득  
“일본인 관점으로 기록  
왜곡된 부분도 적지않아”

제주도 민란연감, 철도(수압식 궤도), 농림·수산·목축 분야 통계 등 이색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민란과 관련해 윤광종의 난(1813년)을 시작으로 화전민들이 부당한 세금(장화세) 부과를 원망하며 일으킨 강제검의 난(1864년), 방성철의 난(1898년), 김시범이 주도한 조천만세운동(1919년) 등을 연도별로 담았다.

다만 일본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은 왜곡된 부분도 적잖다. 제주인들에 대해 거칠고 사납다고 묘사하고, 민란이 자주 봉기한 데다 조천만세운동을 ‘무모한 만세 소동’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제주 여성과 관련해 ‘욕지 부녀자’는 실내에 들어박히는 것을 존중하지만 제주도 부녀자는 야외에서 노동하는 것을 최고로 친다’고 썼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작지 면적, 농업호수, 주요 작물(보리·조·고구마·감귤 등), 비료 개량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면화생산·양잠업, 수산업 등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주기록문화연구소 ‘하간’ 소장인 고영자 박사가 번역했고, 오사카공립대학 문학연구과 이지치 노리코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고영자 박사는 “본 번역서가 당대 식민지 정책을 분석하고, 다양한 자

료와 문헌 생산의 맥락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책에는 제주도 민란연감, 궤도열차, 농림·수산·목축 분야 통계 등 이색적인 내용이 가득하다. 민란과 관련해 윤광종의 난(1813년)을 시작으로 화전민들이 부당한 세금(장화세) 부과를 원망하며 일으킨 강제검의 난(1864년), 방성철의 난(1898년), 김시범이 주도한 조천만세운동(1919년) 등을 연도별로 담았다.

다만 일본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시각은 왜곡된 부분도 적잖다. 제주인들에 대해 거칠고 사납다고 묘사하고, 민란이 자주 봉기한 데다 조천만세운동을 ‘무모한 만세 소동’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제주 여성과 관련해 ‘욕지 부녀자’는 실내에 들어박히는 것을 존중하지만 제주도 부녀자는 야외에서 노동하는 것을 최고로 친다’고 썼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작지 면적, 농업호수, 주요 작물(보리·조·고구마·감귤 등), 비료 개량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면화생산·양잠업, 수산업 등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터 잡은 갈매기떼 10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가에 수백마리의 갈매기들이 자리를 잡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 ‘콩나물 교실’ 고교 비율 가장 높다

교육부 시도별 고교 과밀학급 자료... 제주 비율 45%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과밀학급 비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난해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늘어났다. 증가폭으로는 경기도 7.5%p 늘어나며 가장 컸다.

과밀학급 비율 자체가 가장 높은 곳으로는 제주(45.0%)가 꼽혔으며, 충남(34.0%), 경기(34.0%)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초·중·고교 학급 가운데 28명 이상이 공부하는 ‘과밀학급’은 2021년 23.2%, 2022년 19.0%, 지난해 18.1%로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강다혜기자

올해 평균화고 탈락자 11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2024학년도 평균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자와 학교 배정 결과를 도교육청 및 도내 각 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평균화 일반고 선발 인원은 총 2801명으로, 정원 내는 2760명(남학생 1387명·여학생 1373명), 정원 외 41명이다. 합격선은 개인적차백분율 74.486%이다. 불합격자는 총 11명이다.

강다혜기자

## 작년 연초→연말, 외식 물가 2.9% ↑

한국소비자원 제주 물가 분석  
삼계탕 7%로 가장 높게 올라

고물가 속에 지난해에도 제주지역의 주요 외식품목 가격이 대부분 올라 서민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8개 외식품목의 지난해 12월 제주지역 평균 가격은 같은해 1월에 견줘 많게는 7.0%까지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삼계탕이었다. 연초 1만4250원이던 가격이 12월 1만5250원까지 7.0% 올랐다.

그 다음은 비빔밥과 김치찌개 백반이었다. 비빔밥은 9250원에서 9750원으로 5.4%, 김치찌개 백반은 8750원에서 9125원으로 4.3% 올랐다. 이어 냉면은 8750원에서 9000원으로 2.9%, 칼국수는 9500원에서 9750원으로 2.6% 상승했다. 삼겹살(200g 기준)은 1만6500원에서 1만6750원으로 1.5% 상승했다. 자장면(6750원)은 연초와 동일했다.

반면 김밥은 3000원에서 2950원으로 1.7% 내렸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의 소비자가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2.6% 상승했다. 도내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9% 올랐다.

박소정기자



## 2024년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남녕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월 13일(토) 18:00

**장소**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 (제주시 서광로 112)

**참가비** 3만원(18회부터 면제)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9, 2층(노형동) Tel. 064)744-1986, Fax. 064)711-1986

**홈페이지** <http://www.namnyeong.net/>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roups/namyeong>

**후원계좌**  
예금주 남녕고총동문회  
NH농협 1095-01-009773  
제주은행 02-01-075577  
국민은행 873801-01-192804

**제10회 자랑스런 남녕인상**  

**청송상**  
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  
김경덕 (2회)

**천마상**  
전문 분야 활동을 통해 모교 명예 고양  
부성혁 (5회)

**장미상**  
모교-총동문회 및 지역 사회 봉사로 동문들의 귀감  
현해경 (4회) 정경민 (29회)

**공로패·감사패**  

**공로패**  
고영종 (2회) 직전회장  
어울림마당주관가수 (17회)

**감사패**  
정형근 (남녕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정숙 (남녕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부회장단 및 재경동문회장 |          |        |          |
|---------------|----------|--------|----------|
| 수경총회장         | 장영석 (3회) | 기획부회장  | 김민석 (3회) |
| 재경총회장         | 김경덕 (2회) | 디지털부회장 | 김고건 (6회) |
| 여성부회장         | 김현정 (2회) | 문화부회장  | 정현해 (4회) |
| 체육부회장         | 김승우 (3회) | 산업부회장  | 박영준 (5회) |
| 재무부회장         | 김진희 (3회) | 사학부회장  | 김영순 (4회) |
| 조직부회장         | 문석찬 (4회) | 장학부    | 김정숙 (3회) |

**2023년도 남녕을 빛낸 동문들**

| 수상·수훈                             |                                       |
|-----------------------------------|---------------------------------------|
| 이세자 (2회)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관화부문 특선'  | 이선호 (12회)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우수상'        |
| 진지연 (3회) 제24회 신사임당미술대전 '한국화부분 특선' | 현지현 (12회) 고용노동부장관상                    |
| 안영석 (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패            | 오원중 (13회) 2023년체육발전유공공포상자 '체육훈장(백마령)' |
| 김영순 (4회) 제22회 전국추사서예 문인화 회화대회 특선  | 강상현 (33회)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남자87kg급 메달  |
| 강봉석 (6회) 법무부장관 표창장                | 양서인 (24회) 제12회 변호사 시험 합격              |
| 김은미 (6회)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                                       |

**승진**

|                                      |                           |
|--------------------------------------|---------------------------|
| 강도형 (1회) 해양수산부장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오태욱 (4회) 제주경찰청 총경         |
| 김기표 (1회) 제주특별자치도청 물환경과 수자원보전 팀장(사무관) | 김승환 (12회)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경정 |
| 문준결 (2회) 예산 신양중학교 교장                 | 박관준 (12회) 해병대사령부 중령       |



## 제26대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고 홍 기